

79. 씨뿌리는 자의 비유

마태복음 13:1-9, 18-23

1 그 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2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3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 뿌릴새 더러운 길 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5 더러운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7 더러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8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9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8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 가에 뿌려진 자요

20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22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23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1 That same day Jesus went out of the house and sat beside the sea.

2 And great crowds gathered about him, so that he got into a boat and sat down. And the whole crowd stood on the beach.

3 And he told them many things in parables, saying: "A sower went out to sow.

4 And as he sowed, some seeds fell along the path, and the birds came and devoured them.

5 Other seeds fell on rocky ground, where they did not have much soil, and immediately they sprang up, since they had no depth of soil,

6 but when the sun rose they were scorched. And since they had no root, they withered away.

7 Other seeds fell among thorns, and the thorns grew up and choked them.

8 Other seeds fell on good soil and produced grain, some a hundredfold, some sixty, some thirty.

9 He who has ears, let him hear."

18 "Hear then the parable of the sower:

19 When anyone hears the word of the kingdom and does not understand it, the evil one comes and snatches away what has been sown in his heart. This is what was sown along the path.

20 As for what was sown on rocky ground, this is the one who hears the word and immediately receives it with joy,

21 yet he has no root in himself, but endures for a while, and when tribulation or persecution arises on account of the word, immediately he falls away.

22 As for what was sown among thorns, this is the one who hears the word, but the cares of the world and the deceitfulness of riches choke the word, and it proves unfruitful.

23 As for what was sown on good soil, this is the one who hears the word and understands it. He indeed bears fruit and yields, in one case a hundredfold, in another sixty, and in another thirty." (Mat 13:18-23 ESV)

설교질문

1. '길 가', '돌 밭'으로 해석된 표현은 본래 각각 어떤 곳을 말합니까?
2. 18절을 제대로 해석하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 비유의 제목인데요,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3. 비유에서 씨뿌리는자는 누구이고, 씨앗은 무엇이고, 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4. 씨앗이 길가/돌밭/가시떨기/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어떤 사람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좋은 땅이 좋은 땅일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 12장에서 주님께서는 아무 잘한 것 없는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자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 비유와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할수 있습니까?
6. 이 비유를 통해 지금까지 어떤 결론을 들어 왔습니까? 설교를 통해 깨달은 것이나 느낀점이 있다면 나눠봅시다.